

마귀홈장 무패행진 깨졌다... 연변팀 홈에서 2대4 역전패

—날아오른 전반전, 허둥지둥 후반전



올 시즌 첫 선발 출전해 추가골을 터뜨린 류박

“마귀홈장” 무패행진이 깨졌다. 희망의 전반전이었던 딱 그만큼 절망스러운 후반전이였다.

6월 1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된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1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슈퍼리그 진출을 꿈꾸는 광서평과하료팀(이하 ‘광서팀’)과 맞붙어 2골이나 앞선 전반전 우세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채 후반전에만 내리 4골을 허용하며 대패했다.

2연속 홈장인 연변팀은 지난 대 광서전과 똑같은 4-1-4-1 전형으로 시작했다. 최전방의 로난을 원톱으로 류박, 리강, 손군, 리봉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선 천창걸이 중원을 구성하고 한광휘, 서계조, 왕봉, 김태연이 수비라인을 지켰다. 키퍼 장강은 동가람이 착용했다.

경기전 소식공개회에서 부상이 언급되며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던 이보는 이날 대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다. 리세빈도 대명단에서 빠진 가운데 제9라운드 대 흥룡강빙성전에서 승리와 맞바꾼 값진 레드카드를 받고 결장했던 손군이 복귀했고 U-21 선수 류박이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다.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는 두 팀의 탐색전이 시작되면서 양팀은 상호 뒤공간을 노리며 경기를 조심스럽게 풀어갔다. 초반 10분까지 슈팅에 세트피

스 기회 등 공격 포인트를 주고받았지만 위협적인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 뒤공간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천천히 라인을 올리던 연변팀은 차츰 경기의 분위기를 가져오며 광서팀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16분경 광서팀의 프리킥이 매섭게 연변팀 골문을 노렸지만 동가람이 선방으로 막아냈다. 뒤이어 나온 동가람의 연속적인 선방이 빛을 발하며 연변팀은 역습을 노렸다. 광서팀 문전을 아슬아슬하게 휘저으며 선제골 사냥에 몰입했다.

그러던 중 전반 28분에 천창걸의 슈터풀이 터지며 연변팀은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다.

중원에서 서계조가 천창걸에게 짧은 패스를 넘겨줬고 공을 받아 거리를

가늠하던 천창걸이 초장거리 슈팅을 냈다 날려 광서팀의 골대를 모조했다. 고요하던 경기장에 우뢰와 같은 함성이 터진 건 그 순간이었다. 공중에서 호선을 그리며 날아가던 공이 칼로 켜듯 정확하게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광서팀 키퍼가 몸을 옆으로 날렸지만 손 쓸 새도 없는 슈터풀이었다.

1대0으로 일찌감치 앞서간 연변팀은 기세가 올랐다. 슈터풀 맛을 본 천창걸이 또 한번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며 연변팀은 자신감 있게 경기를 풀어갔다.

연변팀의 조직적인 압박과 공세에 밀려난 광서팀은 41분경에 다시 한번



연변팀의 파상공세에 무너졌다.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전한 U-21 선수 류박이 공을 받아 오른쪽 측면에서 박스 안으로 쇄도하던 상대팀 수비수를 따돌리며 슈팅을 때렸다. 이번에도 역시 광서팀 키퍼가 옆으로 몸을 날렸지만 골대 측면을 노린 공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추가시간까지도 밀물공세를 퍼붓던 연변팀은 2대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전력 교체 없이 후반을 시작한 연변팀은 그러나 경기 시작 2분 만에 광서팀에 헤딩골을 허락하며 2대1 상황을 만들었다.

인습 반격을 가동한 연변팀도 로난이 헤딩골로 골대 윗쪽을 노렸지만 광서팀 키퍼가 이번에는 선방으로 쳐냈다.

두 팀 서로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 접전이 펼쳐지며 경기는 불꽃이 튀었다. 후반 60분경에 연변팀은 추가골을 완성한 류박을 빼고 현지건을 투입하며 첫 교체카드를 썼다.

한풀 뉘진 광서팀의 반격이 연달아 이어지더니 63분경 연변팀은 후반전이 시작돼 20분도 안되어 연속 골을 허용했다.

2대2로 두 팀은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 과정에 동가람이 부상을 호소하며 66분경 연변팀은 U-21 선수 왕호승으로 동가람을 교체했다.

뒤이어 73분경 연변팀은 두장의 교체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다. 허문광으로 손군을, 양경범으로 리봉을 교체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그러던 중 75분경에 연변팀은 광서팀에 역전골을 내주며 2대0에서 되려 2대3으로 끌려갔다.

추격에 성공한 광서팀이 기세가 오르며 연변팀은 이렇다 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수비에 치중했다. 간간이 시도한 연변팀의 역습도 광서팀 수비라인을 뚫지 못하며 애간장을 태웠다.

추가시간이 7분 주어져 마지막까지 연변팀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마지막 한방이 없이 허둥지둥 헤매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더 이상의 만회골은 나오지 않았다. 되려 경기 종료 직전에 광서팀이 4번째 골까지 내주며 무너졌다.

희비가 엇갈린 전반전과 후반전을 오가며 다 잡은 승기를 놓친 연변팀은 홈에서 2대4로 역전패를 당했다.

2연속 홈정기를 치른 연변팀은 6월 8일에 청도흥사와 원정경기를 펼친다.

/글 김기혜기자 /사진 김파기자

[특독 관전평]

연변팀 ‘홈장무패’의 빛과 그림자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오던 20경기 홈장무패 기록이 깨졌다.

2023 시즌에 연변팀은 홈에서 7승 8무로 무패를 유지하면서 갑급리그에서 유일하게 홈장무패를 기록한 팀으로 남았다. 올 시즌 11라운드까지도 연변팀은 4승 4무 3패, 순위 7위에 올라있었는데 그중 5개 홈장에서 무패를 기록했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짙은 법이라 했던가. ‘홈장무패’라는 빛 뒤에는 ‘홈 원정 경기력 차이’라는 그림자가 늘 따라다녔다.

올 시즌 11라운드까지를 살펴봐도 연변팀은 제3라운드 대 남경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이외 원정에서 치른 5경기에서 빅거나 패했다.

“무패 기록은 좋지만 원정에서 시월한 승리가 없다는 게 타격이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원인이다.

그래도 홈에서는 지지 않는 경기를 하던 연변팀이 제12라운드 만에 안방에서 역전패를 당했다.

“마귀홈장” 명예를 사수하기 위한 선수들의 투혼이 빛을 발하며 홈장 무패는 꼭 마치 바쳐야 할 숙제와도 같았다. 지난 대 광서평과하료팀 경기전 소식공개회에서 김봉길 감독은 “래일도 홈 연승을 위해 잘 준비하겠다.”고 홈장무패를 언급했다.

한편으로 슈퍼리그 진출을 노리는 팀인 데다 4월분 최우수선수인 초와나와 최우수감독으로 선정된 왕소가 모두 광서팀에서 나온 만큼 갑급리그 몸값 1위를 자랑하는 상대를 만나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는 전망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변팀은 전

반전에만 2골을 몰아치며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역시 강팀에 강한 연변팀인가.” “역시 마귀홈장인가...” 고조되었던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데 45분이면 충분했다. 최선의 전반 45분 경기를 펼친 연변팀은 우세한 경기를 최악의 후반전으로 맞바꾸었다. 승리의 판도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정신력을 다듬어 공격을 가하는 광서팀에 연변팀은 후반 추가시간 종료 직전까지 내리 4골을 허용하며 다 잡은 승리를 내줬다.

그림자는 강했다. 비록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이를 막았지만 후반 들어 재차 나타난 집중력 저하와 체력 고갈 문제점은 약자같이 뛰는 길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였다. 상대팀이 우리보다 한수 우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무패를 종결하는 대신 그래도 이날 연변팀은 19세 U-21 선수 류박의 폭발력을 뽐내며 젊은 피의 가능성을 엿봤다는 게 성과라면 성과다. 이보 등 부상 선수가 많은 와중에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전한 류박은 추가골까지 터뜨리며 자기 몫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갓 주장 완장을 찬 천창걸선수의 ‘제12라운드 골모음 톱 1’에 선정되더라도 손색없는 초장거리 슈터풀도 역전패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위안이다.

하여 후반전 들어 체력 고갈이 항상 제기되는 문제점이라면 류박과 같은 신인들의 투입을 팬들은 내심 기다리는 눈치다. 아직 12라운드까지만 달려온 리그, 리그는 길고 다음 경기는 많다. 변화하는 연변팀을 팬들은 기대한다.

/ 김기혜기자

[감독초대석]

김봉길 감독 “전반전엔 좋았지만 결과가 아쉬웠다”

6월 1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된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1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은 홈장 무패행진을 이어가지 못하고 2:4로 광서평과하료팀에 역전패했다.

경기후 있는 기자회견에서 연변룡정팀 김봉길 감독은 “전반전엔 좋은 흐름을 가져왔지만 후반전에 일찍 실점해서 아쉬웠다.”고 경기를 평가하고 나서 “현재 부상 선수가 많이 나왔지만 다음 경기를 위해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서평과하료팀 왕소 감독은



“연변팀은 강팀이다. 부상 선수가 많이 나왔지만 소수민족팀으로서 근성 있고 마지막 1분까지 뛰는 정신은 승패를 떠나 축구에 꼭 필요한 정신이다.”라며 찬사를 보냈다.

/ 김파기자

레알 마드리드, 통산 15번째 UCL 우승

에스파냐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가 통산 15번째 챔피언스리그(UCL) 우승을 차지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도르트문트(독일)와의 UCL 결승에서 2-0으로 승리하며 우승컵 ‘빅이어’를 들어올렸다.

후반 29분 다니 카르발, 38분 비니시오 주니오르가 연속 골을 터트리며 팀 승리를 견인했다.

UCL에 유난히 강한 면모를 보이

는 레알 마드리드는 2년 만이자 통산 15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은 통산 7번째 UCL 결승 무대에서 5번째 우승을 지휘하며 ‘명장’의 위업을 보였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미드필더 토니 크로스는 카르발의 선제 결승골을 돕는 활약으로 최고의 피날레를 펼쳤다.

/ 외신

마스코트 ‘정정’ 첫선, 경기장에서 펼쳐진 뜻깊은 ‘6.1’절 행사



갑급리그 제12라운드 경기가 마침 6월 1일에 연변팀 홈장인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열렸다.

‘6.1’절을 경축하고 연변 ‘축구의 고향’ 열정을 선보이기 위해 연변룡정축구구구락부와 연변조선족자치주부원회에서는 손잡고 ‘애심을 모아 동심과 동행’(汇聚爱心 温暖童行) 계열 주제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특별히 22명의 장애아동과 류재아동(留守儿童)을 초청해 경기전과 경기후 시간

을 리용하여 선수들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잊지 못할 명절을 함께 보냈다.

경기전 아이들은 지원자와 전문호송인의 안내하에 선수들과 손에 손잡고 경기장에 들어가면서 현장을 찾은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어 사전에 배치된 전문적인 관람구역으로 인솔해 아이들이 경기를 직관하면서 명절의 분위기를 한층 더 만끽할 수 있게 했다. 아이들에게 아름



다운 추억을 선물해주기 위하여 또 소정의 선물과 기념품을 준비해 활동에 참가한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했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선수들과의 기념사진 촬영을 마련해 잊지 못할 명절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주었다.

한편 이날 연변룡정축구구구락부 마스코트인 ‘정정’(鼎鼎)이 첫선을 보였다. 귀여운 마스코트가 경기장에 등장하자마자 아이들은 물론 현장 관

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명절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사회각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펼쳐진 이번 활동은 아이들에게 명절의 축복과 관심을 전달했음은 물론, 이번 활동을 통해 축구는 일종의 스포츠일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애심과 희망을 전달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걸 보여주었다.

/글 김기혜기자 /사진 김파기자